

빛고을 장애인체육 빛낸 별들 “잊지 않겠습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2025 광주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전국장애인체전 종목 종합 1위 양궁, 성취 종목·도약 종목 시상
김지향·양지은·장신영 ‘광주시장상’, 박정연·이기홍 등 공로상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광주를 빛낸 체육 유공자들을 시상하고, 새로운 광주시장에인체육 비전을 공유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일 광주시장에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2025 광주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을 겸해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한 양궁, 종합 3위 배구와 보치아를 비롯해 성취 종목 육상, 도약 종목 론볼·당구·골프종목 시상상에 이어 올해 광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5개 부문(체육진흥상·자원봉사상·공로상·홍보상·우수모범직원상) 58명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다.

체육진흥상 유공자는 전문체육 부문 김지향(광주시장애인수영연맹), 양지은(광주시장애

인역도연맹), 장신영(광주시장애인육상연맹)이, 생활체육 부문은 강도영(장수당 한약방), 광민경(남구장애인체육회), 손대승(남구체육회)이 각각 광주시장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은 광주장애인체육 제1, 2기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광주 장애인체육 선수들을 위해 1천만원을 후원한 박정연 승호테크 대표이사과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선수단을 위해 600만원을 후원한 고상형 광주365재활병원장, 광주시장에인배드민턴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광주시장에인배드민턴협회 운영과 매년 500만원씩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후원금을 기탁한 이기홍 회장(목송산업개발 총괄사장), 전국체전 후원금을 쾌척한 이석우 한일종합기계주 대표 등이 각각 수상해 의미를 더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등 내빈들이 2일 광주시장에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5 광주시 장애인체육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2026년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꿈을 향한 도전에 함께 해준 많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도 광주시장에인체육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시장에인체육회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순위 6위 달성’,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 공동 개최’, ‘광주시 장애인탁구훈련장 시설 개·보수’ 등 전문·생활·시

설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빛나는 한해를 보냈다. 광주시장에인체육회를 다가오는 2026년에도 빛고을 7만 장애인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광주FC ‘구단 첫 준프로’ 김윤호와 프로 계약

구단 최초… 김윤호 “항상 겸손한 자세로 팀에 보탬이 될 것”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2일 구단 첫 준프로 선수 김윤호와 프로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구단 U-18팀인 금호고 2학년 김윤호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던 광주는 김윤호가 보여준 잠재력과 성장세를 높이 평가해 이번 정식 프로 계약으로 연결했다.

2007년생 김윤호는 2024년 9월22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17세 4개월 9일의 나이로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다. 이는 승강제 도입된 이후 K리그1 최연소 출전 기록이기도 하다.

김윤호는 이후 U-18 대표팀에도 발탁되는 등 촉망받는 유망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왔다. 현재까지 K리그2 경기에 출전해 프로 무대 적

을을 차근차근 이어가고 있다.

김윤호는 장신 공격수다운 포스트 플레이뿐 아니라, 날카로운 키펀스와 유연한 공간 침투 능력을 겸비한 전천후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는 김윤호의 정식 프로 계약 체결로 공격진의 옵션을 확장하고, 2선과의 연계 플레이 강화 등 다양한 전술적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김윤호는 “정식으로 프로선수가 돼 매우 기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FC 구단 최초 준프로선수에서 프로계약을 체결한 김윤호

광주FC, 금호고 공배현·김용혁·정규민 전격 콜업

‘젊은 피’ 수혈… 새로운 활력

프로축구 광주FC가 젊은 피 수혈로 새로운 활력을 보여냈다.

광주는 2일 “구단 산하 U18 금호고 소속인 공배현(DF·18), 김용혁(DF·18), 정규민(MF·18) 유스 3인방을 프로로 콜업했다”고 밝혔다.

공배현은 187cm·78kg의 우수한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 중앙 수비수로 큰 키를 활용한 공중 볼 경합 능력이 장점이며 빠른 판단력과 인터셉트 능력이 뛰어나다.

공배현과 함께 뒷문을 지키 김용혁 역시 188cm·76kg의 체격을 갖춘 중앙 수비수로 제공권 뿐만 아니라 큰 키 대비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커버, 양발을 활용한 빌드업 능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원을 이끌 자원인 정규민은 원발잡이 중앙 미드필더로, 올해 U18 금호고 상승세의 핵심

에이스로 활약했다.

우수한 키크 능력을 바탕으로 한 볼 배급과 타압박 능력이 돋보이며,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다.

금호고 3인방은 각자의 롤모델을 언급하며 성장을 다짐했다.

변준수의 수비 능력을 닮고 싶다고 밝힌 공배현은 “하루빨리 데뷔해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선보이고 싶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안영규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김용혁은 “팀에 빠르게 녹아 들어 좋은 활약으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FC가 전격 콜업한 공배현, 김용혁, 정규민

신장무를 롤모델로 밝힌 정규민은 “광주에 합류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명보호, 월드컵 우승확률 0.3%”

유타 슈퍼컴퓨터 예측…스페인 17%

축구 기록 전문 매체 ‘유타’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전망한 한국 축구대표팀의 우승 확률은 0.3%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은 스페인의 17%였다.

유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유타 슈퍼컴퓨터를 통

해 내년 대회 결과의 초기 예측을 했다”고 밝혔다.

유타는 “아르헨티나가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가운데 2022 월드컵 준우승팀인 프랑스와 유로 2024 챔피언인 스페인이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며 “잉글랜드와 브라질, 포르투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유타 슈퍼컴퓨터가 본선 진출을 확정된 42개

국에서 가장 높은 우승 확률로 손꼽은 국가는 17%의 스페인이다.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14.1%), 잉글랜드(11.8%), 아르헨티나(8.7%), 독일(7.1%), 포르투갈(6.8%), 브라질(5.6%), 네덜란드(5.2%), 노르웨이(2.3%), 콜롬비아(2.0%)가 우승 확률 10%를 구성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7위(0.9%)를 차지했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한 한국은 0.3%의 우승 확률로 이집트, 알제리와 함께 공동 26위에 올랐다.